

해양부, 국제수로기구에 개도국 능력배양 기금지원

국제수로기구(IHO)와 기금지원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와 국제수로기구(IHO)간에 개발도상국의 수로업무 능력배양을 위한 기금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성진 해양부장관과 IHO의 마라토스 이사장은 1일 오전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HO에 올해부터 매년 10만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이 기금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에 관한 기술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배양 프로그램에 쓰여지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2월 마라토스 이사장의 방한시 해양부와 IHO간의 개발도상국의 기술지원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지원방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국

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 동해 표기의 정당성과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IHO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 정부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해저지명 등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 IHO와 각 회원국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IHO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수로부문 및 해상안전에 관한 협력, 수로자료 통일화, 국제해도 기준제작 및 해저지명 공인 등을 통해 전세계 항해안전에 공헌하기 위해 1921년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2006년 4월 현재 회원국은 76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1957년 가입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정책 세미나 개최

국제적 안전규제조치 대응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는 5월3일 14:00-18:00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양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제적 안전규제조치에 대한 정부 및 업체, 단체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윤민현 전무가 '해상보험과 해상안전'을, 한국해양대학교 신한원 교수가 '협약기준 미달선박과 국제해운을, 해양수산연구원 전영우 교수가 'ILO 통합해사노동협약과 선박안전운항'을, 해양수산연구원 김영모 교수가 'IMO 회원국 감사제도(MAS)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뒤 현대상선 신용호 해사본부장을 좌장으로 하여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김현종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박찬조 회장, 해양한국 이인애 편집부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가진 후 질의응답이 있었다.